

'맛의 고장' 광주·전남 '백년가게' 달랑 2곳

중기부 소상공인 육성 사업... 컨설팅·홍보·금융 등 각종 지원 홍보 안되고 소상공인·지자체 무관심... 5개월간 2곳 신청 그쳐

'맛의 고장'이라 불리는 광주·전남지역의 명성이 무색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롤모델 육성을 위해 '백년가게' 사업을 시작한지 5개월이 됐지만 지역 내 신청률이 저조해 애초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맛의 고장이라는 특성을 살려 지역 내 외식산업 경쟁력을 키워도 모자를 판에 정작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지자체는 관심도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 1차부터 지난달 4차 발표까지 백년가게 사업에 선정된 광주·전남 지역 업체는 각각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10개), 충북(7개), 전북

(6개), 대구(4개), 부산(3개), 강원(3개), 경남(3개), 충남(3개), 경북(2개), 대전(2개), 제주(2개)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

특히, 지난 6월 1차 신청접수부터 11월 까지 5개월간 백년가게 선정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지역 업체도 광주와 전남이 각각 2개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에서 93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비교하면 2.15%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백년가게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기부가 올해 시작한 백년가게 육성사업은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자 비중과 잇따른 창업과 폐업의 반복이라는 악순환 속에서 지속성장의 가치를 실현하는 소상공인의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음식점과 도소매업 등이 대상으로, 백년가게에 선정될 경우 확인서와 인증현판이 제공되고, 유명 O2O플랫폼사·한국관광공사·소상공인방송 등과 협업해 홍보까지 지원해준다. 이밖에 컨설팅·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첫 시작한 사업인데다,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신청률 저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광주와 전남이 '맛의 고장'이라 자부하면서도 정작 음식·외식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는 업계 당사자와 지자체 모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다. 척박한 산업·창업생태계와 일자리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지역의 경쟁력으로 꼽히는 '맛'과 '음식'을 사업화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에서는 막창과 치킨 등을 아이টে姆으로 굽착한 프랜차이즈가 탄생하고 있는 것 과도 대비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지역의 맛과 음식이라는 특성을 살려 음식의 산업화를 이룰 경우 일자리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박진석 JS컨설팅 대표는 "'맛의 고장' 광주·전남 지역만의 프랜차이즈를 키워내는 게 사업을 유지하는 것만은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지역의 강점인 음식문화를 개발하고 창업과 연계해 국내 음식산업화를 선점하고 외식산업화 선도도시로 나아가 수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31.93 (+35.07) ↑ 금리(국고채 3년) 1.92 (+0.03)
- ↑ 코스닥 709.46 (+13.70) ↓ 환율(USD) 1110.70 (-10.50)



광주디자인센터 해외 기업설명회
광주디자인센터는 최근 중국 광저우 힐튼 티안허호텔에서 중국권 40여개 제조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8 디자인기업 해외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디자인전문기업의 해외 진출과 디자인 용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전북 9개 디자인전문기업이 참여했다. <광주디자인센터 제공>

'엠블호텔 여수' 호남권 첫 5성 등급 획득

관광공사 심사 최고 등급
1천점 중 900점을 이상 받은 호텔에 주어진다.

엠블호텔 여수(사진)가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는 호텔별 등급제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5성을 획득했다.

호남권에서 5성 호텔은 엠블호텔 여수가 처음이다.

엠블호텔 여수는 오는 15일 '특1급'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5성' 현판을 걸 예정이다.

별 등급제 심사는 관광공사가 2015년 도입한 호텔 등급 심사제로, 5성은 현장 평가(700점)와 암행평가(300점) 등으로

21점점 중 900점을 이상 받은 호텔에 주어진다.

엠블호텔 여수는 5성 획득을 기념, 최대 50% 할인을 적용하는 '5성 기념 패키지'를 선보인다. 객실 1박, 조식 뷔페 2인, 5성 기념 타월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는 오는 10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한편, 대명레저산업이 건립한 엠블호텔 여수는 지난 여수박람회 기간 동안 반기문 UN사무총장과 3개국 대통령, 유럽과 중동 6개국 왕족 등이 묵으면서 '별들의 숙소'로 눈길을 끌었다.

/여수=김정화 기자 chkim@



65세 이상 고령층 재취업자 10명중 3명은 청소·경비직

'주된 일자리' 퇴직 평균 49세
65세 이상 고령층의 재취업자는 10명중 3명꼴로 청소·경비직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 양서영 연구원은 3일 '고령자 고용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고용보험 통계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2017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에 따르면 고령층의 직종별 고용보험 신규취득자는 청소·경비가 31%로 가장 많았다. 특히 50세 이상 재취업자 중 직종 고령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대부분 청소·경비업종에 재취업했다.

양 연구원은 "은퇴 전 직업훈련 미비, 고령 인력수요의 일부 업종 편중 등으로 고령자 일자리는 청소·경비 등 저생산성 일자리에 과다 포진했다"고 지적했다.

50대 재직자 중 사업자가 지원하는 '직업능력 훈련개발' 프로그램을 받은 비율이 11%에 불과할 정도로 은퇴 전 직업훈련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청소·경비 등에 재취업하면서 통계상 잡히는 은퇴연령은 남자 72.9세, 여자 73.1세로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평균 남자 65.3세, 여자 63.6세)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주된 일자리'에서는 평균 49.1세에 조기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60대 초반이라고 양 연구원은 전했다.

이처럼 주된 일자리에 조기 퇴직과 저생산성 일자리에 재취업 때문에 65세 이상 빈곤율은 2015년 45.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양 연구원은 지적했다.

양 연구원은 "점진적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 인센티브 확대로 주된 일자리에 근속 기간을 늘리는 한편, 고령자 대상 직업훈련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일본·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도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있다"며 "신규 고령자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말연시 여행객 잡기 아시아나항공 이벤트

아시아나항공이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휴가족' 공략에 나섰다. 남은 연차를 소진하려는 직장인들의 여행 수요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31일까지 '2018년 내가 여행권!' 이벤트를 실시한다. 국내선, 중·단거리 국제선, 장거리 국제선(미주·유럽·시드니) 등 세 개의 부문으로 나눠 이벤트 기간 내 누적 구매 금액이 가장 높은 아시아나클럽 회원 1·2·3위를 선정해 LED 마스크, 백화점 상품권, 호텔 숙박권, 패밀리 레스토랑 식사권 등을 제공한다.

각 부문별 4위부터 100위에 선정된 회원에게는 아이스크림 기프트콘을 증정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아파트 이어 단독주택 가격도 급등

지난달 광주 1.12%↑ 전국 최고
급등세를 보였던 광주지역 아파트값에 이어 단독 주택 매매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늘어나면서 도심재생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데다, 아파트값 상승이 단독 주택에 대한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지역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전월에 견줘 1.12% 급등했다. 광주 단독주택 매매가격 오름폭은 지난달 전국에서 가장 컸다. 전국 평균(0.53%), 수도권·5대 광역시 평균(0.69%)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상' 기류도 감지된다.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의 경우 지난달 0.30% 상승하는데 머물면서 전월(0.67%)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아파트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에 따라 오름세가 둔화됐음에도 단독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를 상쇄하며 전반적 주택 가격 상승세를 이끌어가는 모양새다. 지난달 광주의 주택종합(아파트, 단독, 연립주택 종합) 매매가격도 전월에 비해 0.46% 올랐다.

전남의 지난달 단독주택 매매가격도 전월(0.49%)에 견줘 0.76%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았다.

한국감정원은 도심재개발과 재건축 수요가 늘어나는 데서 원인을 찾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재건축 같은 전면 철거 대신 노후 도심과 주거지를 정비하는 도심재생사업을 내세우면서 단독주택 선호 현상이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오른 아파트 대신, 투자 가치가 높은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도 거세에 반영되고 있다는 게 부동산업계 분석이다.

주택산업연구원도 '2019년 주택산업전망'을 통해 "단독주택의 경우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누적 상승률은 전국 2.8%, 수도권 3.6%, 지방이 2.5%에 이르는 등 고점을 넘어선 아파트가격 수준"이라며 "다양한 주거문화 추구를 위한 단독주택의 가치 상승,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작용하여 단독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대우위니아 김혁표 대표이사 선임 예정

대우위니아가 내년 1월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김혁표(57·사진) 전무를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김 전무는 한양대 기계공학과와 헬싱키대 MBA를 졸업했으며 동부대우전자(현 대우전자) 상품기획담당을 지냈다. 임시주주총회는 내년 1월 8일 열린다.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 째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 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KCPBA 2016 한국소비자보호원 최우수브랜드
2011 프리미엄브랜드대상
2011 프리미엄브랜드대상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신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다른 육각형 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이피노산,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